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 례 10:15 교전 9:16 행 1:8
2025년 주님의교회 표어



504
2025.8.24.

오늘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_히브리서 12:2

오늘의 주요 기사

2 하나님의 선교 특집
3 찬송가 이야기
4-5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6-7 유소년숲 여름사역
8-10 청소년숲 여름수련회
11 성지순례

12-13 학원선교부 수련회
14 체육관건축 / 주님과함께
15 교사일기



*1면 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글이든지 1면을 채울 글을 보내주시면 편집회의를 거쳐 정성껏 1면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문은 자연보호를 위해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 특집

환경을 돌보는 청지기 가정(하나님이 맡기신 창조세계의 돌봄)(시145:10)

2025년 함글함글은 올해 교회 표어인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에 맞게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이야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지난 호 ‘소금과 빛이 되는 가정’에 이어 이번 호에는 ‘환경을 돌보는 청지기 가정’에 대해 나눕니다.

시편 145편 10절과 창조 세계에 대한 감사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10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바다, 그 안의 모든 생물까지 포함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 자체로 선하고 아름답습니다(창 1:31).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기후 변화, 폭염과 폭우,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은 인간의 욕심과 무절제한 사용의 결과이자,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 사명을 잊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잘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일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순종의 행위입니다.

환경을 돌보는 청지기 가정의 특징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가정) 시편 기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의 것으로다”(시편 24:1)라고 선포합니다. 청지기 가정은 세상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이기에 함부로 낭비하거나 파괴하는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절제하는 가정) 감사는 절제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공기, 물, 식량, 에너지를 감사함으로 받는 가정은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전등 끄기, 물 아끼기, 음식 남기지 않기 등 작은 습관이 모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다음세대에게 창조 돌봄의 가치를 가르치는 가정) 환경을 돌보는 일은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쓰레기 분리배출을 성실히 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줄 때, 자녀는 환경 보호를 ‘교과서가 아닌 삶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는 곧 신앙 교육이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모범이 되는 가정) 창조 세계를 돌보는 삶은 개인적인 만족이 아니라 세상에 본이 되는 행동입니다. 지역 사회의 환경 캠페인에 참여하고 이웃과 함께 나무를 심거나 하천 정화 활동에 나서는 가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과 청지기 사명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창조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 청지기 가정은 행동뿐 아니라 기도로 창조 세계를 품습니다. 기후 위기, 산불, 홍수, 멸종 위기 생물 등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겪는 고통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환경 문제를 단순한 사회 이슈가 아니라 영적 사명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환경을 돌보는 청지기 가정을 위한 실천 방안

(가정의 생활 습관 점검하기) 정기적으로 전기·수도 사용량과 쓰레기

배출량 등을 점검하고 자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환경 습관을 정해 실천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양치할 때 컵을 사용해 물을 절약하기, 집 안 불 끄기 담당 등을 맡겨줍니다. 이렇게 작은 책임을 맡으면 아이들은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가족 모두가 창조 돌봄에 동참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과 가까이하는 시간 갖기) 가족과 함께 산책, 캠핑, 바다나 숲 방문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창조주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 속 예배나 묵상은 가족의 신앙과 환경 의식을 함께 세워줍니다.

(재활용과 재사용 실천하기) 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가능한 재사용품을 활용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헌 옷 기부, 물건 수리 후 재사용, 장바구니 사용, 텀블러 생활화는 단순한 절약을 넘어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기후 약자와 함께하기) 기후 위기의 피해는 특히 가난하고 취약한 이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줍니다. 폭염으로 힘든 어르신, 폭우로 집을 잃은 이웃을 돕는 것은 환경 돌봄과 사랑의 실천이 함께 어우러진 사역입니다. 창조 세계를 지키는 일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전환에 동참하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선택을 합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태양광 패널 설치를 고려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시도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결론: 창조 돌봄은 곧 하나님 사랑

환경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시편 145편 10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가정은 창조 세계를 소중히 대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자 다음 세대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은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섬기며, 일상의 작은 습관 속에서도 창조 세계를 지키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폭염과 폭우로 고통받는 이웃을 돕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는 빛과 소금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글함글



찬송가 이야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이 찬송은 예수님을 ‘내가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신 분’으로 고백하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주의 은혜가 이미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는 선행하신 은혜를 노래합니다. 특히 이 찬송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들에게도, 갓 믿음을 갖게 된 이들에게도 공감되는 회고적 고백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이 찬송의 작사가는 제임스 그린들리 스몰(James Grindly Small)입니다. 그는 1817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나 현지 고등학교와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활동한 시인이자 목회자입니다. 1843년에 자유교회에 가입하고 1847년부터는 먼트로브 인근 버비(Bervie)의 자유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했습니다. 이 찬송은 처음에 ‘Jesus the Friend’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는데, 자신의 신앙적 경험에서 나온 진솔한 고백으로 신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는 조지 콜스 스테빈스(George Coles Stebbins)입니다. 그는 1846년 뉴욕주 올리언스 카운티의 농장에서 태어나 성장해 23세까지 농사일에 종사하다가 이후 음악의 길로 전환하게 됩니다. 버팔로와 로체스터에서 음악과 성악을 공부한 후, 1869년에 시카고로 이주하여 음악 경력을 시작해 시카고 퍼스트 침례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찬양 사역자이자 작곡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시카고에서 활동하던 중 여러 복음성가의 주요 인물들과 연을 맺게 되었으며, 이후 보스턴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876년 여름에는 무디의 초청을 받아 전도집회 사역에 참여하며 찬양 인도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곡도 복음 전도 집회 환경 속에서 영적 메시지를 담아 작곡되었고, 찬송집 편집 및 전 세계적인 복음 사역을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이 찬송의 핵심 메시지는 앞에서 얘기했던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먼저 아셨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라는 가사는 단지 시간적인 선후를 넘어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을 때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이 찬송은 연합의 진리를 노래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상호내주(indwelling)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신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고백합니다. 먼 하늘 위의 존재가 아니라 내 곁에서 동행해 주시는 인격적인 주님, 나의 고난과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삶의 친구로서의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2절의 가사는 속죄와 헌신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대속의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고 전 인격을 바쳐 충성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선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중

마지막 절은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으며 주님은 우리의 방패와 보호자, 참된 친구이심을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 중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며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과 감사로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주일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방패”라는 믿음을 붙들며 구원의 확신 위에 서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함



90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통일 98)

J. G. Small, 1863 I've found a Friend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요 15:15) 예수 그리스도
FRIEND: 87.8.7.D.
G. C. Stebbins, 1878

보통으로

1.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2. 내 친구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3.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내려 주사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그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의 의지 하고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 능히 끊을꼬 나

저 포도나무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몸과 맘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참 좋은 나의 친구

쉬운 기악코드(Capo=1st) Ab→G Eb7→D7 Db→C Bb7→A7

유아숲
2025 여름성경학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편

유아숲 2025년 여름성경학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편”을 주제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함께하신다는 사랑의 메시지가 유아숲 아이들과 가정에 새겨지기를 소망하며 예배와 활동들을 기획하였습니다.

1. 찬양축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해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찬양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①여름성경학교 가보자 ②하나님 능력 알고 있니 ③모세처럼 말씀따라 ④한 걸음 또 한걸음 ⑤하나님 지켜주세요 ⑥사랑의 아이



이번 영아부와 유아부와 유치부 합동 여름성경학교에 세 남매가 함께 참석하게 되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울동하며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직접 찬양을 따라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재미있는 성경 연극을 통해 말씀을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고, 홍해 바다 체험과 물고기 풍선 놀이 같은 활동을 통해 말씀을 몸으로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 가족들과 함께 나눈 점심 식사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이 찬양을 흥얼거리며 성경학교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아이들의 마음에 잘 심겨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선생님, 집사님들,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교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아이들 마음에 오래도록 기억될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해준, 박해민, 박해진 부모님

2. 연극설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이야기를 담은 가족 연극을 기획하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5개월 하임이와 20개월 노아가 태어나 처음으로 참석한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가장 눈이 반짝였던 것은 단연 연극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선생님들의 생생한 연기 덕분에 아이들이 유튜브 못지않게 호기심 어린 눈빛을 가지고 설교에 집중할 수 있었고, 특히 하임이는 7월의 암송 말씀인 출애굽기 13장 21절을 외우고 있던 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직접 봄으로써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암송 말씀을 더욱 흥미롭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비단 아이들뿐 아니라 이제는 어른이 된 저도 어릴 적 성경학교에 참석했던 기억이 떠오르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연극 준비해 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임하임, 임노아 부모님

3. 대그룹활동: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찬양을 배경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대그룹활동을 통해 경험해 보았습니다.



모세편 말씀으로 찬양과 연극이 이어졌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그룹 활동을 통해 함께 홍해 바다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되어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홍해 바다의 기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앞으로 뒤로 행진하며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속 ‘홍해의 기적’에 대해 아이들과 말로만 나누었던 시간에서 시각,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 준비하는 교사들도, 참여하는 아이들도, 지켜보는 부모님들도 인상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사실 매주 틈날 때마다 바다 천을 잡고 손을 높이 올리며 행진하는 연습을 하며 그 다음 날까지 팔이 아파 고생이 되었습니다. 성경학교 당일에 생각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은 가정이 참여하여 걱정했지만, 오히려 더 큰 감동과 기쁨으로 가득찼습니다. 작은 풍선들과 바다 천을 만지면서 마냥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앞에서도 우리 모두가 감사와 기쁨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행복의 마음을 갖게 하는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은혁 교사 / 유치부

저는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드는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행사의 분위기를 위한 단순한 장식물이라고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점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경험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야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조형물 또한 단순한 장식이지 아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징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한 우리 아이들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며 단지 시각적인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통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작게나마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이 준비 과정을 통해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지나 교사 / 유아부

4. 전체소감: “감사의 인사”

2025년 주야의 ‘첫’여름성경학교를 앞두고 정말 많이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름성경학교 며칠 전부터 갑자기 열이 나서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열이 내려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 보느라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못하지 않을까 했던 걱정과 달리, 주야가 가만히 아빠 품에 안겨서 동그란 눈으로 얇전히 탐색하는 모습에 저희 부부와 첫째 선우는 찬양과 연극, 대그룹활동에 함께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극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를 연극으로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과 함께하시는구나 느끼며 벅찬 감동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주야와 여름성경학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대그룹 활동 때는 너무 어린 아이라 참여하기 어려웠는데, 여름성경학교가 끝난 다음 주에 아기부 예배 후에 다시 한번 흥취가 갈라지는 기적을 미니 버전으로 놀이하며 메시지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기들이 즐겁게 물고기 스티커를 뜯고 붙이고, 바닷물을 표현한 천을 만지며 놀이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유아숲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김주아 부모님(나은영 성도)



5. 맺는말

신축체육관으로의 유아숲 부서실 이전 이후, 유치부실(농구장)에서 유아숲 전 부서 가족예배로 진행함으로써, 부서실 이전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 함께하는 성경학교 겸 주일 가족 예배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으로 어린이 214명, 부모 289명, 교사 80여 명이 모여 다소 복잡한 가운데 진행이 되었지만, 어느 때보다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아숲 안에서 함께 배우고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유아숲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윤경 목사 / 유아숲



유소년부
2025 여름성경학교

성령으로 다시 살아가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

2025년 주님의교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는 "부흥대작전"이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에스겔 37장 14절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획되어, 마른 뼈와 같았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살아가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부서는 말씀과 찬양, 기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성령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상훈 목사 / 유소년부

유년부는 7월 26일(토)부터 27일(주일)까지 무박 2일 동안 주님의교회에서 진행되었으며,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다양한 말씀 체험 활동과 게임, 찬양, 물놀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즐겁고도 의미 있는 시간 속에서, 어린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복음을 배우고 나누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초등부는 7월 25일(금)부터 27일(주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안성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푸른 자연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는 법을 익히며,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찬양, 물놀이 활동, 코너학습 등을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성령 하나님을 귀하게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년부는 같은 기간 경북 상주의 사무엘동산에서 말씀과 찬양, 기도 에 집중하는 깊이 있는 영적 프로그램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 말씀과 찬양, 기도회가 이어졌으며, 캠프파이어를 통해 서로를 더 알아가는 귀한 시

간이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소년부 학생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며,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동생과 함께 보조교사로 시작했던 소년부에서, 어느새 담임이 되어 3번째 여름성경학교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개인 일정 탓에 교회학교 활동에 소홀했기에 어색함과 부끄러움을 안고 시작한 성경학교였지만, 오랜만에 만난 저를 보고서도 아이들은 환히 웃어주며 풍성한 시간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부흥대작전!’이라는 주제로 사무엘동산 주말전원교회에서 진행한 이번 소년부 여름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은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어떤 순간에서도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특히 저녁 기도회 시간, 성령이 오셨음을 목놓아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은 예루살렘, 안디옥과 아덴에 성령과 복음을 통하여 교회를 부흥시킨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는 우리의 다짐은 쉽게 무너지고 잊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무색하게도 주님과 함께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의 마음이 주님의교회 모두에게 전해지길 소망하며,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도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봉사해주신 소년부 선생님들과,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마음을 전해주시고 봉사의 손길을 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소년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귀한 자리를 내어주시고 정성이 가득한 식사를 준비해주셔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사무엘동산 주말전원교회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모든 귀한 손길들 위에서,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아이들 모두의 성령에 불을 지피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길 기도합니다.

김소현 교사 / 소년2부

유소년부
2025 여름성경학교

참된 북극성

2025년 유소년부 여름성경학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잔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도로 준비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유소년부의 모든 여름사역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훈 목사 / 유소년부

EM(English Ministry)은 “True North”를 주제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붙들고 7월 19일(토)~20일(주일), 그리고 23일(수)까지 무박 2일 일정으로 주님의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예수님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변함없는 친구이자, 인생의 진정한 방향(참된 북극성)”이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준비되었으며, 알래스카의 광활한 자연-웅장한 산맥, 힘차게 흐르는 강물, 빛나는

빙하, 그리고 신비로운 북극광-을 상상 속 배경으로 삼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곁에 함께하시며, 결코 변하지 않는 반석과 같은 친구이심을 마음 깊이 새기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함께함 성경문해력

말씀을 쏙쏙! 어린이를 위한 쉬운 성경 이야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잔치

시편 23편 5절

개역개정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5

어려운 말

원수	나를 미워하거나 해치려는 사람
목전	눈 앞
상	음식을 차려 놓은 상
기름을 부으셨으니	옛날에는 귀한 손님을 환영하거나 특별한 사람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축복했어
잔이 넘치나이다	컵이나 잔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다는 뜻이야

쉽게 바꾼 말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이 있는 상을 차려주시고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쉬워?

말씀 적용하고 함께 기도해요

말씀 쏙쏙 적용하기

누군가 나를 싫어하거나 놀려도,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손님이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자. 힘들고 외로운 날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사랑은 여전히 내 마음에 넘친다.

하나님, 저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고,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지 않게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소년부 고등부
2025 여름수련회

고등부 여름수련회, 'Rejoice Always'

청소년부 비전트리 고등부는 7월 18일(금)부터 7월 20일(주일)까지 <Rejoice Always>라는 주제로 원주 로렐힐링타운에서 여름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7절로 '항상 기뻐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소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가 보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첫날 낮선 장소로 이동하는 아이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마음의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서로 챙겨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 집회 시간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주셨고, 아이들 또한 기도에 힘입어 간절히 주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전국 잔치로 만들어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청소년들, 수련회를 위해 헌신하고 애써주신 선생님, 기도로 함께해주신 부모님과 주님의교회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수련회 이후의 삶에서도 청소년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계원 목사 / 고등부

길고 길었던 이동시간 끝에 도착한 로렐힐링타운의 모습은 거슬리게 느껴졌던 비조차 은혜롭다고 생각될 만큼 멋졌습니다. 익숙한 도심에서 벗어나 향긋한 풀내음을 맡자, 본격적인 수련회가 시작한다는 느낌에 기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의 비전이 친구들, 다른 교회로부터 혹은 다른 나라로부터 온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은 무척이나 신나고 감동적이었다고, 정신없이 흡입하게 만드는 식사와 교사분들이 손수 힘써주셨던 간식은 굶주렸던 뱃속이 꺼질 틈이 없어 마치 축복받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쉴 새 없이 먹고, 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이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한 곳인지도 알게 되었고, 수련회에서 받은 많은 사랑과 정성으로 쌓아지는 하나님과의 유대는 결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항상 은혜롭고, 기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맹주원(고2) / 고등부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초반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힘든 일 이후에 수련회에 가니까 마음가짐이 예전과는 조금 다른 달랐던 것 같다. 예전에는 수련회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다고 느끼다가 집에 가면 그런 느낌을 못 받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보다 진심으로 기도해서 그런지 내 내면이 조금 바뀐 것 같다. 일상에서 힘들다가 수련회에서 위로받고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서 너무 좋았었다.

엄서현(고1) / 고등부

인생 처음 수련회에 가 본 것이지만 나쁘지 않은 좋은 경험이었다고 같습니다. 선생님들, 친구들 모두가 상냥하고 좋았습니다. 재밌는 활동과 야식까지 챙겨주는 밥 등 대개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찬양 및 예배 등의 활동을 밤 11시 반까지 하기에 피곤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 번 이상 가기는 힘들 것 같지만 딱 한 번 정도는 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좋은 기운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가장 좋았고 재밌었던 활동은 물놀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저 거대한 워터파크나 바닷가만이 물놀이의 전부 는 아닌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예준(고2) / 고등부

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은 참으로 역설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힘든 순간에도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옹아매는 세상 속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때로 이해되지 않는 역설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겼다. 청소년 시절의 끝자락에서 맞이한 이번 수련회는 나의 삶이었다. 서로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은 외면할 수 없이 아름다웠고, 마치 은하수처럼 빛났다. 나에게 주님은 가장 역설적인 분이시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도 같으며, 한 줄기 빛으로 셀 수 없는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빈틈없이 사랑하신다. 나는 그의 안에서 "안녕하다."

신지호(고3) / 고등부



청소년수련 고등부
2025 여름수련회

저는 학교가 먼 편이라 후발대 버스를 타고 조금 늦게 친구와 수련회에 도착했지만, 그 순간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전도사님들과 친구들이 친절하게 다가와 주어서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맛있는 식사와 간식 덕분에 하루하루 힘이 났습니다. 물놀이 시간의 모든 활동들이 너무 좋은 추억이 되었고, 말씀 시간 전도사님들의 따뜻한 기도문에 마음속 깊이 위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셀러브레이션 시간에 모두와 함께 웃고 뛰놀며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시 기쁨을 되찾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진 뜻깊은 순간들이었기에 수련회에 참여한 것이 전혀 후회스럽지 않았습니다. 다음 겨울 수련회도 꼭 참여하고 싶어요.)

김하연(고1) / 고등부

처음으로 친구를 전도해서 함께 가는 수련회라 가기 전부터 설렌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친구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이 수련회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앞으로 교회에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에 친구가 수련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첫째 날, 둘째 날 물놀이 시간까지는 하나님보다는 친구와 저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집회 때 조별로 기도제목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조 선생님의 기도제목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그 때 제 인생 처음으로 아, 선생님의 기도제목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 하나로 셀러브레이션 때까지 가장 열심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하게 해주신 선생님께,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둘째 날 셀러브레이션이 끝나고 자유롭게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자기도 간증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친구가 이번 수련회가 좋은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Rejoice Always!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저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기쁘게 살겠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해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윤예주(고2) / 고등부



청소년부 중등부
2025 여름수련회

팝콘이와 함께 떠나는 CHOO! CHOO! 기차여행

청소년부 팝콘트리 중등부는 7월 18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Rejoice, Always!' 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서울 팀수양관으로 여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여름 캠프에 참여한 15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하며 자신을 마주 보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여 공동체 활동을 하며 주님의교회 중등부 '팝콘트리' 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Rejoice역에 도착한 기차여행 리얼후기

사실 처음에는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중등부에서의 첫 번째 여름 캠프이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련회에 들어가자, 친구들과 선생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점점 걱정에서 기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함께 코너 학습과 팀빌딩, 물놀이 등을 하며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지고 서로 협동하며 즐겁게 캠프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필리핀 교회에서 온 필리핀 친구들도 함께 참여해 더욱 재밌는 캠프가 되었습니다. 저는 셀러브레이션과 기도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셀러브레이션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인데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오로지 즐겁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저도 오랜만에 신나게 뛰며 찬양을 했습니다. 또 기도회 시간에는 서로를 위해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위해 기도해주며 다 함께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에 인상 깊고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름 캠프를 하는 동안 캠프의 주제대로 기쁨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캠프를 마치고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번 캠프를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주아(중1) / 중등부

모두가 함께 모여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예배로 여름 캠프의 시작을 하나님께 알리며 첫날을 마쳤습니다. 둘째 날은 코너 학습부터 물놀이, 집회, 셀러브레이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코너 학습은 잘 참여하지 못했지만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잘 회복하여 물놀이부터 다시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회복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물놀이를 가서는 슬라이드도 타고 서로 물장난도 치며 신나게 놀았고, 간식들로 허기지지 않고 끝까지 즐길 수 있었습니다. 놀아주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합니다. 물놀이로 인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회에 가서는 꾸벅꾸벅 졸기도 했지만, 집회 후반부에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평상시의 일상에 깊은 화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셀러브레이션은 다같이 신나게 찬양을 부르고 뛰며 공동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께 은혜받을 수 있어 의미 있던 수련회였습니다. :)

최지원(중2) / 중등부

이번 캠프는 제가 중등부 교사로 참여한 두 번째 여름 캠프였습니다. 작년엔 중등부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잘 몰랐는데, 준비 과정에서 작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아 '여름 캠프 한 번이 그냥 똑딱하고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캠프 진행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잘 따라와 주는 모습이 중등부 교사로 섬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좋았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으나 청년 교사, 장년 교사 그리고 교역자님들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어 이번 캠프도 뜻깊고 기억에 남는 캠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예현 교사 / 중등부

- 더욱더 하나님에게 가까워졌다. [중1, 남]
- 프로그램 짱! [중1, 예]
- 친구와 놀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코너학습 등 팀 활동과 셀러브레이션이 재밌었다. [중1, 예]
- 일상에서 하나님과 조금은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수련회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대화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라 기뻐다. [중2, 예]
- 팝콘트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서 너무 좋았다. 프로그램도 정말 재미있었다. [중2, 남]
-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면서 전도사님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어보면서 평소에 궁금하고 어찌면 이해도 되지 않았던 점들을 알게 되었고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이해해보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중2, 예]
- 기쁘지 않을 때도, 감사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자! [중2, 예]
- 역시 셀러브레이션이 최고다! [중3, 남]
- 이번 캠프를 통해서 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어 정말 좋았고, 원을 만들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인상 깊었다. [중3, 예]

가장 푸른 시기인 청소년 시절, 자신을 알아가고 참된 기쁨을 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름 캠프를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므로 참된 기쁨은 혼자서가 아닌 함께 할 때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누군가 손을 잡아주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팝콘 트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넘쳐나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까지 삶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찬양 전도사 / 중등부



성지순례
사도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지순례

사도바울의 선교 여정을 함께 걸으며

이번 사도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지순례는 1차(6.9. ~ 6.19.), 2차(6.30. ~ 7.10.) 10박 11일 동안 3개국(튀르키예, 그리스, 이탈리아)을 거치는 긴 여행이었다. 무더운 날씨에 하루 만 보 이상 걷는 날도 많은 터프한 일정이었지만, 사도바울의 에너지 충만한 전도 여정을 체험한 은혜로운 순례 여행이었다. 여러 지역을 방문했지만, 내 마음속 순례는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출발점 역할을 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바울의 참수터인 로마 ‘세분수교회’에서 끝났다.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그때 모습을 재현하며 예배드리는데 순간, 눈앞 타우루스 산맥의 험준함을 넘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매 맞고 쫓겨나는 바울의 모습이 떠올라 울컥했다. 일반인에게는 그저 로마 유적터 돌무더기들에 불과하겠지만, 바울의 소아시아대륙 첫 외침이 있었던 곳이라 생각하니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고, 어느 미주교포 순례단이 많은 노력 끝에 세운 한글 현판도 뜻깊게 눈에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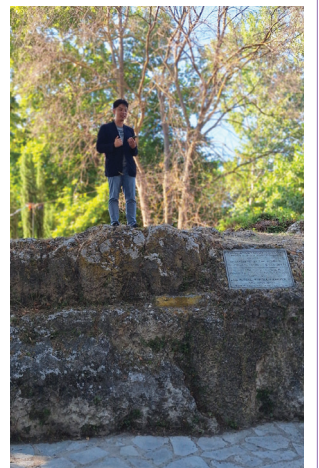
위대한 전도사역의 종착점인 바울의 참수터 로마의 세분수교회는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받은 곳이다. 바울이 참수당할 때 머리가 세번 튕졌는데 그 자리마다 물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여 이곳에 세분수교회를 지었다고 한다. 바울이 갇힌 지하 감옥을 보며 ‘참 아들’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호소하는 바울의 인간적 고통과 외로움이 절로 느껴졌다. 안타깝게도 바울은 디모데가 오기 전 순교했다. 우리 순례단은 바울이 참수터를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떼던 돌길에 앉아 경건하게 기도했고, 깊은 감격에 휩싸였다.



순례 여행은 바티칸 베드로 성당까지 이어졌다. 로마 가톨릭의 총본산답게 웅장하고, 미켈란젤로의 유명 예술품 등이 즐비했지만, 세분수교회가 갖는 비장함과 성스러움은 느낄 수 없었다. 공감과 감동은 외적 웅장함이나 아름다움보다, 내면에 깃든 스토리에서 나오나 보다. 한편, 순례 여정에서 마케도냐 전도의 첫 열매가 있던 빌립보 감옥터, 바울이 빨래터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아볼로니아 바위 언덕, 파르테논 신전 앞 바울의 설교터 아레오바고 언덕 등 많은 곳에서 은혜받았다. 이 가운데 버스에서 스치듯 지나갔던 고린도 부근 겐그레아항도 잊지 못할 곳이다. 겐그레아항은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머리를 깎고 떠난 곳이다. 우상숭배와 타락이 극심했던 고린도의 구원을 위해 바울이 나실인 서원까지 하며 비장한 각오로 임했던 지역이었다. 현재의 예쁜 비치 풍경 속에 2,000년 전 바울의 고린도 작별 장면이 그려졌다. 성령에 이끌려 유럽대륙으로 건너가, 북쪽 마케도냐에서 남쪽 아덴과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사나운 유대인, 냉철한 철학자, 방탕한 세속주의자 등 다양한 불신자들을 영적으로 제압하고, 떠나는 바울이 너무 멋지고 위대해 보였다. 비록 지금은 흔적이 없어졌어도, 그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감동되는 것이 성지순례의 참 기쁨인가 보다.



이밖에 빌립보 루디아기념교회 앞 시내에서 무더위에 지친 발을 담그며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찬양하던 시간, 그리스에게 해변에서의 황홀한 노을, 이탈리아로 향하는 선상에서의 멋진 아드리아해 일출 등은 고된 순례 일정에 주어진 보너스 같았다. 다만 바울이 3년간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고, 마침내 ‘유효하고 광대한 문이 열렸다(고전 16:9)’고 감격해했던 에베소에서, 로마 유적만 정신없이 보고 나온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순례를 마치니 사도바울의 위대함이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고, 사도행전 및 바울서신 각 구절에서 바울의 마음이 전해져 은혜롭다. 특별히 사전 강의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순례팀을 이끌어주신 윤경수목사님, 이대혁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훌륭한 조장님들을 비롯해 따뜻하고 베풀기에 부지런했던 순례팀원들 모두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지금도 교회에서 마주치면 오랜 전우 만나듯 반갑게 인사하여 참 기쁘다.

학원선교부
2025 수련회

하나님 사랑으로 초대

지난 8월 8일, 학원선교부는 기도어머니와 사랑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초대’라는 주제의 1일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학원선교를 섬기기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닌 자녀이며, 열심히 해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섬김의 핵심은 기술이나 전략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임을 강조했고,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은 결국 영혼을 외면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각자의 외로움과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치유를 구했고, 어머니들이 서로를 품고 눈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품 같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흘렀습니다. 또한 외부 압력으로 위축된 정신여중·고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열정을 가진 교사들이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여고 동문 워십팀이 ‘내 모습 그대로’를 찬양하며 선보인 워십은 큰 감동을 주었고, 이어진 소그룹 모임에서는 말씀과 삶을 나누며 학원선교부의 사명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윤주 목사

학원선교부 기도어머니 사역은 정신여고 1, 2학년 아이들을 5~6명씩 맡아서 1년에 8번 종교 수업 시간에 만나 수업도 하고 기도해줍니다. 사랑어머니 사역은 정신여중 2, 3학년 나눔과섬김 수련회 시간에 1시간씩 5명의 아이들을 만나서 2학년은 인성교육을, 3학년은 복음 제시 수업을 합니다. 140여년 전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주인되시며 복음이 선포되는 학교. 예배가 살아 있으며 기도하는 선생님과 어머니들이 계시는 믿음의 전통이 살아있는 기독교 명문 여성사학 정신여중·고. 선교지와 같은 영적 전쟁이 난무하는 이곳 정신학원에 주님의교회를 보내셔서 학원선교부를 통해서 주

님이 주신 거룩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신학원과 주님의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정신학원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지키는 선교적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80여 명의 학원선교부 부원들이 정신학원 아이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쌓아갑니다. 우리들의 섬김이 정신학원 아이들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는 시간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영선 권사 / 학원선교부 부장



이번 학원선교부 수련회에 정신여고 동문 워십팀(무아모)으로 초대 받아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은혜이자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정신여중·고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학원 선교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었고, 늘 후배들을 위해 기도해주시는 학원선교부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저희 워십팀은 기대와 기도 속에서 감사함으로 공연을 준비했고 기도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공연 후 장로님, 권사

님, 집사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은 큰 감동이었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무대를 함께 기뻐해주시는 모습에 감사했습니다. 멀리 가평까지 함께 이동하는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깊이 느낄 수 있었고 모든 순간이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 정신 학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고 무아모 선·후배들과 주님의교회를 만나게 된 과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음을 다시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로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도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더욱 힘써 준비하겠습니다. 박소정 / 정신여고 동문 워십팀

올해 초 나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어머니 사역을 시작했다. 그 후 내 삶에 생긴 가장 귀한 습관은 새벽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 시간은 오히려 내게 평안과 위로를 주었고, 기도가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지는 신비로운 선물임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이 사역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내 삶에 의미를 더해주는 여정이 되었고, 함께 기도하는 팀원들은 큰 힘과 가르침이 되었다.

그들과 하루 종일 기도와 나눔을 함께하는 날은 설레는 일이었다. 가평 ‘우리마을’에 도착하자 고요한 공기와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따뜻

한 은혜가 느껴졌다. 찬양 속에서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까지 주님께 내어놓았고, 목소리가 하나로 울려 퍼지며 하늘에 올려졌다. 이어 정갈한 음식과 따뜻한 대화는 마음까지 데워주었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마신 차 한 잔은 그날의 은총을 마무리하는 작은 의식 같았다.

그 시간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 은혜였다. 가평의 하늘과 바람, 기도의 자리에 함께한 얼굴들은 오래도록 내 마음에 빛날 것이다. 그날의 은혜로 오늘도 나는 기도한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릴 용기와 믿음을, 그리고 아이들의 앞길을 축복하며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기를.

유수안 집사

고즈넉한 풍경 속 유럽의 작은 마을을 닮은 ‘가평 우리마을’에서 학원 선교부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목사님은 말씀 전 짧은 영상을 통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데도 우리가 의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떠올랐고, 그 사랑 앞에서 세상의 어려움은 작은 염려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감당할 사명은 분명합니다. 정신학교 학원선교부는 이미 최고의 선교지를 품고 있고, 아이들은 우리 앞에

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전해지는 것이며, 이번 수련회는 그 사명을 위해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자리였습니다.

서로를 안아주고 축복하며 기도로 위로를 나눴고, 맛있는 식사와 커피, 북한강과 수국이 주는 풍경 속에서 마음의 쉼도 누렸습니다. 학원 선교부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자랑스럽고, 앞으로 정신여중고에서 이어질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번 수련회의 은혜를 깊이 간직합니다.

김혜림 집사

누가복음 15:29~30. 형의 원망이 내게 더 쉽게 다가온다.

누가복음 15:31. 아버지의 마음은 때론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기도어머니 3년 차를 채워가며, 이번 8월 무더위 속에 다녀온 가평 우리마을 수련회는 말 그대로 수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아닌 낯선 공간은 마치 스위스의 어느 마을을 여행 온 듯한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주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열정적인 설교와 이어진 통성기도, 짝공과 허그하며 드린 기도는 성령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했습니다. 눈물로 드린 그 시간은 큰 위로와 뿌듯함이 되었습니다. 점심 후에는 갤러리를 둘러보고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며 잠시 망중한을 즐겼습니다.

특히 ‘바람의 언덕’에서 나눈 대화는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일상의 깨달음을 나누는 귀한 교제였습니다. “나도 그래”, “그럴 땐 이렇게 해”라는 서로의 고백 속에 위로와 교훈이 흘렀고, 결국 모두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같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 같은 사람을”

누가복음 15:32. 내가 탕자였음을 알고 나니 그저 감사할 뿐이다. 나를 맞이해 주시고 즐거워해 주시고 기뻐해주시니....

2025년 8월의 수련회에서 얻은 힘으로 나의 학생들을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나혜원 집사



먼저 학원선교부 수련회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첫사랑을 잃었다’는 책망이 제게도 향하고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익숙함의 무서움을 말씀하실 때, 불과 1년 반밖에 안 되었지만 기도가 줄어든 제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찢렸습니다.

33년간 교사로 세상 지식만 전하며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 못했던 제가 기도어머니로 부름받았음에도, 반응 없는 학생들로 인해 힘들다 토

로했던 것이 결국 기도의 부족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올해는 노래선교단 학생들을 맡아 감사했는데, 목사님의 “모범생 A와 날라리 B 중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라는 질문 앞에서 어떤 학생이든 기도로 섬겨야 함을 다시 다짐했습니다.

파트너와 포옹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던 시간은 큰 위로와 응원이 되었고, 팀원들과의 나눔도 귀한 교제가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헌신해주신 목사님과 임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소영 집사

학원선교부와 함께 가평 우리마을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출발 전 집안일과 검진 준비, 강아지 문제까지 마음이 복잡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우선하기로 하고 떠났습니다. 산과 강이 어우러진 주황 지붕의 우리마을은 지중해 마을을 떠올리게 했고, 그 자체로 마음의 회복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은혜로웠던 것은 조원들과의 나눔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나누며 큰아들의 인정목구가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며 혹시 편애하거나 첫째에게 과한 책임을 지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그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야 할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로를 안아주며 기도하는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상처를 품어주심을 믿으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기도어머니의 역할이 아이들이 가족과 친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작은 통로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언제 맘 편히 수련회를 가나’ 했던 제 기도와 달리, 먼저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쉼과 회복, 총명한 기쁨을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몸이 쉬었고, 말씀 속에서 마음이 쉬었습니다. 함께 웃고 기도한 교우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고, 앞으로의 신앙 여정에서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정유진 집사

정신학원
체육관 건립

교회와 학교가 손잡고 이룬 다음 세대의 터

지역사회의 교육 환경을 풍성하게 하고, 다음 세대가 믿음과 인격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 교회는 지난 몇 해 동안 정신학원 체육관 건립 지원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왔습니다. 그 첫걸음은 2021년 2월 4일, 정신학원과 체육관 개축 지원에 합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2월 17일에는 체육관 건립 지원과 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고, 2024년 10월 23일에는 구체적인 사용 원칙과 관리 방안이 담긴 사용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협약 속에는 학교와 교회의 따뜻한 배려와 상호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주중에는 학생들이 체육관 전체를 사용해 배우고 뛰놀며, 주말에는 교회가 1층 시설을 사용해 다음 세대가 예배와 교육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2층 시설이나 주중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율하도록 했고, 필요한 비품과 시설은 각자가 설치·관리하며, 전기료와 청소 인건비 역시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전기료는 총액 기준 학교가 30%, 교회가 70%를 부담하고, 청소 인력은 학교에서 지정·운용하되 인건비 중 연 2천만 원을 교회가 부담하여 지정목적 기부금으로 증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세운다’는 마음이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2022년 8월 29일에 착공한 체육관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5년 5월 14일에 강동송파교육청으로부터 체육관 사용 승인을 받았고, 6월 1일에는 유아부와 유치부가 새 공간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환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이 울려 퍼진 그날은, 단순한 공간 사용의 시작이 아니라, 학교와 교회가 한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올해 유아숲 여름성경학교도 이 곳에서 유아숲 연

합으로 열리며 앞으로 더 많은 사역들이 이 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 체육관은 앞으로도 주중에는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돕는 배움터로, 주말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예배의 터전으로 쓰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 이곳에 스며들어, 이 공간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귀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함글함글

큐티사역부
주님과함께
Season2

주님과함께 걷는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2019년 9월부터 시작되어온 큐티책 『주님과함께』가 2025년 9월부터 새로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과함께’ Season2 주님의교회 만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6년 동안 교회 공동체가 항상 큐티책을 가까이 두고 함께 묵상하면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큐티나눔 코너에 참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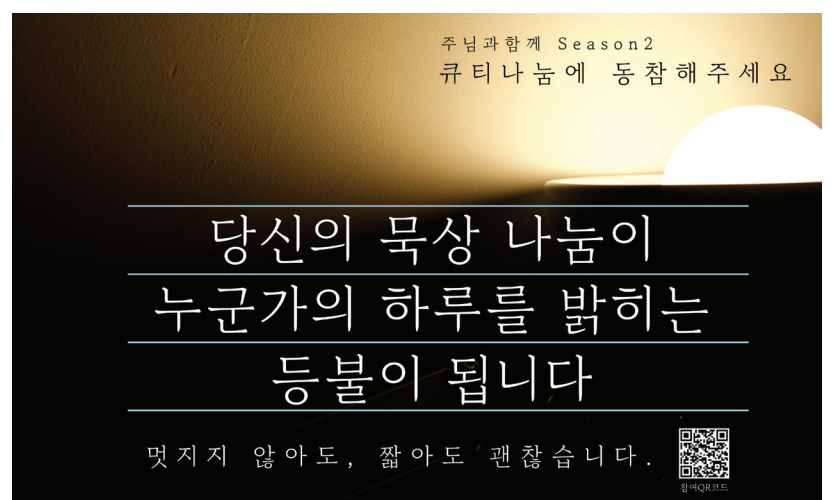
주님의교회 성도들에게 매일 아침 큐티나눔은 익숙합니다. 서로 큐티를 보내고 격려하며 성장하던 것을,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누군가의 큐티묵상을 보며 도전받은 적이 있지 않으신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쌍방향적 대화이며, 동역자들과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짧은 묵상글이 누군가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묵상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구글폼으로 연결됩니다. QR코드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큐티사역부(010-3954-7208)로 문자 주시면 참여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참여자 중 매월 6명을 추첨하여, 묵상 나눔을 2개월 후 발행되는 큐티책 지면에 실어드립니다. 참여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게재됩니다.(예: 7월에 참여 → 9월호 게재, 1교구 김○○집사)

선정되신 분들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큐티책 『주님과함께』 6개월 정기구독권(일반)을 드립니다. 구독자인 경우, 6개월을 연장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로 ‘큐티나눔’서로의 신앙에 울림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문의: 큐티사역부 이영원 전도사(010-3954-7208)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범 목사 / 큐티사역부

교사일기
유아숲 아기정원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이자 동지인 그대에게

창조주의 사랑으로 아이가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곳으로의 초대

부릉부릉~ 순종자동차도 타고, 반짝반짝 별과 강총강총 귀여운 토끼 스티커를 붙이며 천지창조 책도 만들고, 음악 선생님의 피리에 맞춰 오르락내리락 엄마 무릎 롤러코스터도 타는 곳. 아기의 눈은 바쁘게 말뚝 말뚝, 엄마의 입가는 미소로 쭈욱, 교사의 손길엔 사랑이 듬뿍, 목사님의 기도는 축복의 비가 되어 내리는 곳. 사랑살랑 찬양의 바람이 불고, 시원한 말쑤의 그늘이 있는 곳. 혹시 ‘아기정원’들어보셨나요?

“아기 정원을 토요일에 하면 좋겠어요.”제 생애 가장 부끄러운 멘트 중 하나예요. 육아를 잘 하고 싶은 마음에 책을 찾아보고, 유튜브를 뒤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뒷전으로 하던 때, 시들해졌지만 코로나라는 핑계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던 때였거든요. 고작 어린이집에서 하는 아기 체육을 아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아기정원’을 비껴갔던 엄마였어요. 그런데! ‘아기정원’을 지난해부터 토요일에 하고 있어요. 아, 한해만 일찍 시작했어도 참석했을텐데... 라는 부끄러운 생각을 가진 엄마지만 이렇게라도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교사로 두 번째 섬기고 있습니다.

‘아기정원’에서는 15개월부터 40개월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오감으로 경험하면서 신앙적 양육이 이뤄져요. 예배, 자유놀이, 유아체조, 유아미술, 유아음악놀이, 야외학습, 신체놀이, 오감체험 활동,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4주간 봄, 가을 진행되죠. 벌써 32기라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만하죠^^

일주일에 한번 참석하는 ‘아기정원’으로 아이와 엄마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네! 그럼요. 이제 57개월 된 제 딸은 하루에 ‘엄마’를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오늘 ‘엄마’를 열 번도 채 부르지 않았더라고요. 같이 살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같이 있을 때도 제 아이에 비해 몇 번 부르지 않는 걸 보면서, 아이들은 만 5세 때까지 평생 부를 ‘엄마’의 90%를 다 쓰는게 아닐까.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마치 숨 쉬듯 ‘엄마’를 불러제끼니까요.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꼭 붙이는 게 하나 있어요.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어린아이 때와 같이 평생에 늘 하나님을 부르게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 부끄럽네요. 그런데 분명한 건 아이를 양육하면서 주님을 더 많이 부르고 있어요.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가끔은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으면 좋겠고, 소머즈처럼 먼 곳의 아이 목소리도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 입으로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주님을 부르거든요.

아이는 엄마가 엄마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이 다음에 커서 엄마처럼 엄

마에게 엄마라고 부를 거예요. ‘아기정원’은 그 장면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엄마가, 양육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사랑 가득 담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을 아이가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말쑤와 활동을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는 시간이기도 해요.

물론, 가정에서도 충분히 보여 줄 수 있죠. 그런데, ‘아기정원’은 믿음의 사역자들과 엄마들,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평면적인 말쑤가 아닌 오감으로 경험하는 말쑤는 아이와 부모에게 살아 움직이죠. 마치 아브라함에 대한 말쑤가 순종자동차가 되어 타고 노는 것처럼요. 이 시간을 위해 특별히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어마무시한 기도와 수고로 준비하시고, 섬기는 선생님들도 얼마나 특별한 신앙의 사람들인지 만날 때마다 은혜가 풍성해져요.

‘아기정원’에서 만났던 엄마 아빠, 할머니 권사님의 모습은 늘 감동이었어요. 금요일까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힘들었을텐데, 토요일 아침 아이를 준비시켜 교회로 오는 발걸음과 눈빛에 우주를 품고 있는 듯한 깊은 사랑이 보였어요.

제 아이는 비염이 있어서 밤에 잠들 때마다 숨 쉬는 걸 지켜보곤 해요. 아이가 편하게 숨 쉬는 걸 보면 저도 금새 잠이 들지만 그렇지 못한 날에는 밤새 아이의 편안한 숨을 위해 방의 온습도, 공기 질을 확인하죠.

엄마는 아이 생명의 건강한 숨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영혼의 건강한 숨은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이 스스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쑤 읽기를 즐겨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특히 아기일 때는 더 어렵죠. 오직 창조주의 사랑만이 아이의 영혼을 건강하게 숨 쉬게 할거예요. 마치 아이가 엄마를 숨 쉬듯 불러대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른다면 더 없이 건강한 숨을 쉬고 있는 거겠죠.

아이에게 정원이 있나요? 늘 곁에 있는 엄마 품처럼 세상에서 가장 따스하고 특별한 사랑이 감싸는 하나님의 정원이요. 아이가 어느 날 제게 묻더라고요, “엄마, 저는 왜 태어났어요?” 사랑받고 사랑하려고 태어났지. 아마 평생 아이는 묻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둠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듯이요. 그때마다 아이가 창조주의 사랑으로 가득 찬, 어떤 의심과 질문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정원을 찾는 아이가 되면 좋겠어요.

‘아기정원’에서 아이는 평생 찾을 수 있는 영원한 정원을, 부모는 평생 아이와 함께 머물 수 있는 사랑의 정원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완전하진 않지만 그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성경 집사 / 아기정원



함글함글
어린이청소년기자단

<어린이청소년 기자단> 모집

홍보출판부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기자단은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직접 발굴하고, 신앙 안에서 경험한 감동과 배움을 글로 나누는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모임, 예배 등을 직접 취재하고 이를 기사로 작성하거나, 신앙 서적이나 찬양, 영화 등 유익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글을 쓰는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이나 학교, 친구 관계 속에서 신앙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나누는 글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글로 기록하고,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이 소중한 여정에 함께할 친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신앙의 감동을 글로 나누는 일,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함글함글"

어린이청소년 기자단

모집중!

모집대상

주님의교회 초등학교 5학년 ~ 중학생

활동기간

2025년 9월 ~ 2026년 8월

활동내용

예배, 사역, 모임 취재, 찬양, 영화 소개, 신앙생활 에세이, 그림

지원방법

이름, 나이, 부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아래 메일주소로

pclhamletter@naver.com

교회일정

- 9/3(수) : 교구 연합 수요기도회 (6교구)
- 9/5(금)~6(토) : 하반기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 9/7(주일) : 성찬 주일

알립니다

- 1. 2025 주님의교회 비전트립
키르기스스탄 (윤바나바) : 9/23(화) ~ 9/30(화)
- 2. 온가족이 함께하는 성경필사 VOL.15 배부
본문: 누가복음
기간: 9/1(월) ~ 11/30(주일)
수령: 8/24(주일) 1층 로비 / 무인판매대(상시)
- 3. 후문 출차 안내
시간: 오전 10:00 ~ 오후 1:00
문의: 유신식 안수집사(010.5219.3902)
* 후문은 출차만 가능합니다. 주차안내부의 안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4. 2025년 (사)섬김과 나눔 교육 및 진로지원비 신청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대학(원)생
접수: 8/26(화) ~ 8/31(주일) 교회 1층 사무실
문의: 이정은 집사(010.2882.5113)

모집합니다

- 1. 주방봉사자(마무리팀)
시간: 주일 오후 12:00 ~ 2:00
문의: 서정하 장로(010.9554.9715)
- 2. 2025-2 예배다 수어교실 모집(초급반, 중급반)
기간: 9/7~10/26(매주일 오후 1:00)
장소: 지하 다목적실
신청: 김은선 목사(010.4773.8186)
- 3. 하반기 유소년축구 모집
신청: 8/17(주일)~9/7(주일) 1층 로비
기간: 9/7~11/9(매주일 오후 1:00~2:30)(추석 주 휴강)
장소: 정신여중고 운동장
문의: 전기국 안수집사(010.4818.3973)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임익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_ 요한계시록 21:4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생 모집

일시
9.18~11.27 매주 목요일 동영상강의 업로드

대 상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모든 교우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교육비

150,000원 (교재비 포함)
주님의교회 등록교인 (본인부담 50,000원)

등록문의

이미경 부장 010-2395-4293
권천희 회계 010-4740-9313

안내사항

- 1. 교육수료 후 호스피스 병동이나 가정호스피스 봉사가 가능한
- 2. 9월15일(월) 개강식 / 12월12일(금) 합동수료식은 대면으로 진행
- 3. [특강] 11월6일(목) 오후2:00~4:00 발반사요법 대면으로 진행 (참여 필수)

제72기 동영상강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매주 목요일 업로드

주차	업로드 날짜	강의제목	강사
	9/15 (월) 14:00~16:30 각당복지재단	[대면] 개강식 [특강] "열리시기를 넘어서" 무지개호스피스의 창립 취지와 목적 하나님사랑 이웃사랑 호스피스는 생명사랑이다 죽음의 이해와 철학 호스피스와 생명윤리	구미정 (송실대학교 교수) 오혜연 (간담복지재단 회장) 박지웅 (내수동교회 목사) 김영자 (간담복지재단 무지개호스피스 전 회장) 박종구 (생명과학연구원 교수 소장) 박종철 (안전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1	9/18 (목)	우리나라 호스피스의 현재와 미래 말암과 환자의 신체적 고통 비암성 질환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고수진 (울산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김해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팀장) 김대규 (안전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센터장)
2	9/25 (목)	연명의료결정제도(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속과 유언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 환자의 가족의 영적 돌봄 호스피스 환자의 신체적 돌봄 호스피스 환자의 가족의 심리사회적 돌봄	조창숙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본부장) 신원호 (법무법인 해를 변호사) 김도봉 (한국호스피스협회 회장) 홍진희 (서울대학교병원 연명의료윤리상담센터 간호사) 박아경 (국립암센터 의료사회복지팀 의료사회복지사)
3	10/2 (목)	우리나라 호스피스의 현재와 미래 말암과 환자의 신체적 고통 비암성 질환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고수진 (울산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김해지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팀장) 김대규 (안전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센터장)
4	10/9 (목)	연명의료결정제도(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속과 유언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 환자의 가족의 영적 돌봄 호스피스 환자의 신체적 돌봄 호스피스 환자의 가족의 심리사회적 돌봄	조창숙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본부장) 신원호 (법무법인 해를 변호사) 김도봉 (한국호스피스협회 회장) 홍진희 (서울대학교병원 연명의료윤리상담센터 간호사) 박아경 (국립암센터 의료사회복지팀 의료사회복지사)
5	10/16 (목)	상속과 유언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 환자의 가족의 영적 돌봄 호스피스 환자의 신체적 돌봄 호스피스 환자의 가족의 심리사회적 돌봄	신원호 (법무법인 해를 변호사) 김도봉 (한국호스피스협회 회장) 홍진희 (서울대학교병원 연명의료윤리상담센터 간호사) 박아경 (국립암센터 의료사회복지팀 의료사회복지사)
6	10/23 (목)	호스피스 환자의 가족의 심리사회적 돌봄	박아경 (국립암센터 의료사회복지팀 의료사회복지사)
7	10/30 (목)	시별 가족 돌봄 치매 환자 돌봄	한형숙 (서울대학교병원 연명의료윤리상담센터 간호사) 주미라 (단국대 천안캠퍼스 보건간호대학 교수)
8	11/6 (목)	가정 호스피스 돌봄 말기암 환자의 영양관리 감염관리 환자의 통증관리 환자의 심리사회적 돌봄 호스피스 봉사 현황의 소리	고기봉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의료사회복지사) 김국경 (한국호스피스협회 이사) 김영관 (국립암센터 감염관리팀 팀장) 권민희 (한국암센터의학연구소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간호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9	11/13 (목)	호스피스 병동 현장실습 (대면)	정국규 (동북성무가병원 진료팀장) 이혜원 (간담복지재단 팀장)
10	11/20 (목)	시별 가족 돌봄 치매 환자 돌봄	한형숙 (서울대학교병원 연명의료윤리상담센터 간호사) 주미라 (단국대 천안캠퍼스 보건간호대학 교수)
11	11/27 (목)	호스피스 환자의 가족의 심리사회적 돌봄	박아경 (국립암센터 의료사회복지팀 의료사회복지사)

* 시간표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용 | 150,000원 ● 신청방법 | www.kakdang.org ● 신청문의 | 무지개호스피스연구원 ● 02)736-0191 ● kedu@kakdang.or.kr

각당복지재단

무지개호스피스연구원

503호 십자말풀이 정답자

정현정 집사 (5교구), 김희정 성도(8교구)

십자말풀이와 함글함글 기사를 읽고 소감을 제출해주시는 분께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십자말풀이는 함글함글 지면에 답을 직접 쓴 사진을, 기사 소감은 아래한글이나 워드로 A4 1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한 파일을 함글함글 메일(pclhamletter@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직분, 교구,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